

양주 회암사지의 전각배치에 대한 연구
(楊洲 檜巖寺址의 殿閣配置에 대한 研究)

(목은이색의 천보산 회암사수조기를 중심으로)
(牧隱異色의 天寶山 檜巖寺修造記를 中心으로)

金 泓 植

(명지대학교수, 문화재전문위원)

가. 머리

1. 연구의 목적

회암사는 려말선초의 거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당시에는 왕실의 재정지원을 받았던 유명한 절이었을 뿐 아니라 한때는 일세를 풍미하던 보우와도 관계되었으며 그런 까닭에 오히려 일시에 쇠망의 길로 들어섰던 비운의 운명도 호사가에게 회자될 법한데, 더구나 지금남아 있는 각종 석물들의 호방한 모습 및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유적지가 미술사학도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때는 불교가 교종에서 선종으로 넘어가던 시기로서 사찰의 배치가 변화하던 시기인데, 현존하는 대개의 절들이 선종 사찰이고 발굴에 의해서 알려진 개개의 사찰들은 교종의 정신을 반영했으므로 그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절의 배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에 창건된 사찰이 비록 몇 군데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변형으로 인하여 그 전모를 확실히 파악하기가 힘들었는데 회암사는 그 유지가 비교적 잘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목은 이색의 건물배치에 대한 자세한 기록으로 인하여 그 모습을 낱낱이 알 수 있는 단서를 지녔다. 이로 인해서 별로 남겨진 자료가 없다는 고려건축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후 조선조의 조계종으로 통합되는 과정까지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되는바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회암사지 현황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사지가 너무 방대했으므로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1960년대에 금당지등에 대해서만 국립 박물관에 의해 부분적으로 발굴되었고 최성봉씨가 추정 배치도를 작성하였으며(목은의 회

암사 중수기에 따라 추정한 것이겠지만-불행하게도 필자는 이것을 입수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본문에서 서로간의 추정 복원도를 비교해 보지는 못했다. 내용은 회암사지 현황조사 1차조사보고서에서 인용) 1985년에는 본격적으로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유구의 배치도와 함께 자세한 지표조사를 시행하므로서 본격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 (조사, 새한건축문화연구소 "회암사지 현황조사 1차조사보고서")

필자는 1990년 11월 제3단 정비공사의 자문역으로 참여하면서 러말선초에 드날렸던 이곳 회암사 사찰 배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목은의 기록을 참조로 당시의 건물 배치를 추정해 보기로 하였다. 앞으로 보다 자세한 발굴에 의해 본 연구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 인용된 배치도등의 도면은 모두 앞의 1차조사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제3단에 대한 정비도면과 추정 복원도만은 필자가 작성하였다.)



[도면 1] 사지내 실측 현황도 축척 1/200

나. 본 세

1. 회암사에 대한 문헌적 고찰

동국여지승람, 양주목 불우조에 (東國輿地勝覽, 楊州牧佛宇條 檜巖寺)

懶翁이 始建寺나 未畢에 而死하야, 其徒覺田等이 訖工爲屋하니, 凡二百六十二間이라. ... 牧隱이 爲記하다. 金守溫 金創記에... 築基不固하고 殿舍階砌이 積以雜石故로 創造未久에 而屋已老하니, 今 欲間闕 制度는 岡改舊하고 庭除所履는 悉易熟石하니, 其功이 課倍於初創이라고 하여, 목은이 기록하기를 회암사는 "나옹이 짓기 시작했으나 마치지 못하고 죽자 그 무리 각전등이 공역을 마쳤는데 집이 무릅 262간이었다"고 하나, 집은 규모만 컸지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뒤 김수온의 회암사중수기에 의하면 축기가 견고하지 못하고 전사와 계체를 잡석으로 쌓았던 고로 창조가 오래지 않아서 집이 이미 낡는다. 지금 간각 제도는 예전 것을 고치지 않고 정체의 밟는비는 모두 다듬은 돌로 바꾸고져하니 그 공을 계산함에 처음 창건보다도 배가 더든다(새김과 번역은 필자)

따라서 회암사의 초창은 1376년 전후, 중창은 1472년 이후인데 집의 규모는 그대로 하되 마당과 뜰의 계체만 잡석에서 다듬은 돌로 바꾸었다고 말한다. 지금 기단등이 이중으로 배설되어 있는것으로 봐서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알겠으며, 계체의 모습이 고려 후기와 조선초기가 거의 유사한 점도 알 수 있다.

그뒤 명종 때는 보우가 주석으로 있었으므로 당시 보우의 권세로 미루어 생각할 때 대략 조선조 전기인 16세기까지는 회암사의 명성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여지지도에도 여지승람과 똑같은(기사는 대충 줄였지만) 내용을 기록하면서 금폐라는 말이 없다. 말하자면 당시까지 존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여지도서에는 양주목 고적조(古跡條)에 檜巖寺舊地라. 在檜巖面이나. 古時에 無學 懶翁 志恭 三和尚이 創建 九十九房云이라. 而卽今 惟見古碑一苔蝕하고 石砌가 草沒而已라.

즉 회암사 옛터는 회암면이 있으니, 예전에 무학과 나옹, 지공등 3화상이 99방의 집을 창건했다. 곧 지금 옛 비석이 이끼에 덮혔고 돌 계단이 풀에 묻혔을 따름이다, 라고 해서 여지도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폐사가 된지 오래다는 말이 된다. 그뒤 제작된 양주목읍지(아세아문화사 한국지리지총서, 1985, 서울)불우조(佛宇條)에

“檜巖寺 在檜巖面이나 只有基址古碑” 즉 회암사는 회암면에 있으나 다만 집터와 옛비석만 있다라고 해서 이미 그 터조차 희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회암사는 여지도서가 작성되던 영조 시에는 이미 폐사가 된지 오래되었다는 것으로서 회암사지현황조사 1차조사보고서에서 이 절이 “대략 순조년간까지 약 200년이 더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생각되며 늦어도 100년 뒤인 숙종 이전에 폐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유구 정비를 거의 마무리 지은 제 2단지의 동쪽 건물들의 기단지가 더욱 나중에 수축되었으며 기존의 건물지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서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절의 세력이 약화되자 상단의 절들을 헐어서 아랫단의 요사채로 이전해 내려왔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회암사의 규모에 대해서인데 이는 목은이 기록한 262간과 여지도서에서 지적하는 99방의 2가지가 있으나 본래는 262간이던 것이 나중에는 99방 정도로 축소되었다고 보고 현 유구는 원래의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원래 배치를 추정해 본다.

2. 전각의 배치

牧隱의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는 그 자세한 간각이 기록되어 있어 참고가 될 만하다. (前略) 『予案普光殿五間面南, 殿之後說法殿五間, 又其後舍利殿一間, 又其後正廳三間,

廳之東西方丈二所各三楹，東方丈之東羅漢殿三間，西方丈之西大藏殿三間，入室寮在東方丈之前面西，侍者寮在西方丈之前面東，說法殿之西曰祖師殿，又其西曰首座寮，說法殿之東曰影堂，又其東曰書記寮，皆面南，影堂之南面西曰香火寮，祖師殿之南面東曰知藏寮，普光殿之東少南曰旃檀林，東雲集面西，西雲集面東，東雲集之東曰東把針，面西，西雲集之西曰西把針，面東，穿廊三間，接西僧堂，直普光殿正門三間，門之東廊六間，接東客室之南，門之西，悅衆寮七間，折而北七間東寮，正門之東面西五間東客室，其西面東五間曰西客室，悅衆寮之南曰觀音殿，其西面東五間曰浴室/副寺寮之東曰彌陀殿，都寺寮五間面南，其東曰庫樓，其南曰心廊七間，接彌陀殿，其北曰醬庫十四間，/庫樓之東十一間，庫有門，從樓而東四間，又折而北六間，又折而西二間，缺其西，直正門少東曰鐘樓三間，樓之南五間曰沙門，樓之西面東曰接客廳，樓之東北向知賓寮，接客之南面東曰養老房，知賓之東面西曰典座寮，折而東七間曰香積殿，殿之東庫樓之南曰園頭寮，三間面西，殿之南西間曰馬廄，凡爲屋二百六十二間，凡佛軀十五尺者七，觀音十尺(後略)

(새김은 생략-내용가운데 구두점이 틀린 곳이 있다. 본문 참조 요망)

내가 살펴보니, 보광전 5칸이 남면하고 전의 뒤에는 설법전이 5칸이요, 또 그 뒤에는 사리전 1칸이요, 또 그 뒤에는 정청이 3칸이라. 청의 동서에는 방장 2개소에 각 3명 (기동)이라. 동방장의 동쪽은 라한전 3칸이요, 서방장의 서쪽은 대장전 3칸이라. 입실료 (요사)는 동방장의 앞쪽에 서쪽을 면해있고 시자료는 서방장의 앞쪽에 동쪽을 면해 있다. 설법전의 서쪽은 가른 조사전이요. 또 그 서쪽은 가른 수좌료라. 설법전의 동쪽은 가른 영당이요, 또 그 동쪽은 가른 서기료인데 모두 남면하였다. 영당의 남쪽에는 서쪽



[도면 2] 추정건물지 및 건물명 (목은, 천보산 화엄사증수기에서)

을 면하여 가른 향화료요, 조사전의 남쪽에는 동쪽을 면하여 가른 지장료라. 보광전의 동쪽 조금 남쪽에는 가른 전단림인데, 동운집이 면서하였고 서운집이 면동하였다. 동운집의 동을 가른 동파침이라 하는데 면서하였고, 서운집의 서를 가른 서파침이라하는데 면동하였다. 천량은 3간인데 서승당에 접해 있고 보광전에 바로해 있다.(이 부분 새김이 틀렸음) 정문은 3간인데 문의 동회량은 6간이고 동객실의 남쪽에 접했다. 문의 서쪽은 열중료가 7간이고 꺾어져서 북쪽으로 7간을 가른 동료라. 정문의 동쪽에 서쪽을 면한 5간은 (가로 알자는 본문에 없음) 동객실이요, 그 서쪽에 동쪽을 면한 5간은 가른 서객실이라. 열중료의 남쪽은 가른 관음전인데 그 서쪽에 동쪽을 면한 5간은 가른 옥실이요, 부사료의 동쪽은 가른 미타전인데 그(본문에 빠진듯?)쪽에 도사료 5간이 남쪽을 면했고 그 동쪽은 가른 고무요, 그 남쪽은 가른 심량이 7간인데 미타전에 접하고 그 북쪽으로 가른 장고가 14간이다. 고무의 동쪽은 11간이며 고에는 문이 있다. 루를 따라 동쪽으로 4간이요 또 꺾어져서 북쪽으로 6간이요, 또 꺾어져서 서쪽으로 2간이요, 그 서쪽은 빼놓았다. 정문을 똑바로 조금 동쪽에는 가른 종루가 3간이요, 루의 남쪽 5간은 가른 사문이요, 루의 서쪽은 동을 면하여 가른 접객청이요, 루의 동북은 지빈료를 향하였고 접객(청,자귀 없음)의 남쪽은 동쪽을 면해서 양로방이요, 지빈의 동쪽은 서쪽을 면하여 가른 전좌료라, 꺾어져서 동쪽으로 7간(한가할 한의 이음. 사이간으로서 6자를 이른다. 역주)은 가른 향적전이요. 전의 동쪽, 고무의 남쪽은 가른 원두료 3간(한)으로서 서쪽을 면하였고 전의 남쪽 4간(한)은 마구라. 무릇 집이 262간이요, 무릇 불구는 15자 가 7개, 관음은 10라.

(번역은 동문선 권73.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30. 1970. 서울.에 되어 있으나,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여기서는 필자가 다시 한다. 원문도 역시 이 책을 참고로 했으나 원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던 듯 해석하는데 무리가 따랐다.)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 보면 대략 아래 도면과 같은데 이것을 현재 남아 있는 유구 도면에 겹치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원문을 곱씹어 보면서 내용을 검토해 보자.(불행스럽게도 목은집 원문을 입수하지 못해서 동문선 고전국역총서의 원문을 참고했으나 원문 자체를 실은 것이 아니므로 내용을 믿을수 없었다.)

"보광전 5간이 남면하고 전의 뒤에는 설법전이 5간이요, 또 그 뒤에는 사리전 1간이요, 또 그 뒤에는 정청이 3간이라" 곧 정청이 맨 뒤에 자리하고 그 앞에 사리전이요, 그 앞은 설법전이고 그 앞에 보광전이 남향하여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보광전 자리라고 전해지는 6-가의 자리가(여기에서의 모든 부호는 앞선 보고서와 맞추기 위해서 "회암사지현황조사 1차조사보고서"와 일치시킨다. 이를 참조할 것) 과연 보광전 자리일까?하는 의문을 풀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여기가 보광전 자리라고 한다면 그 뒤에 7단은 설법전 자리이어야 하고 다음 8단은 사리전, 그 위에 다시 제 9단이 자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하기에는 너무 뒤가 험착하고 또한 제 8단 동쪽으로 부도탑 등이 자리한 것으로 미루어 다시 제 9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상하는 것은 무리하고 본다.

다시 원문에서 "청의 동서에는 방장 2개소에 각 3명 (기동)이라. 동방장의 동쪽은 라한전 3간이요.서방장의 서쪽은 대장전 3간이라"고 한 것을 보면, 현 8단지의 가와 나의 건물지가 간수나 건물의 분위기로 미루어 동쪽은 라한전, 서쪽은 대장전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8단에는 대장전과 라한전이라고 추정되는 건물의 동서측상에 복판 정청 3간을 중심으로 좌우에 조그만 세기등집인 동서방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동방장이 있

움직한 자리에는 현재 (8-다 위치) 전면 초석이 6개가 노출되어 5칸집으로 사료되는 집터가 있었음을 알수 있는 바 아마도 5칸 전퇴 또는 5칸 양통의 방장이 있었으리라 믿는다. 다음 원문에서 "입실료(요사)는 동방장의 앞쪽에 서쪽을 면해 있고 시자료는 서방장의 앞쪽에 동쪽을 면해 있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입실료와 시자료는 모두 제7단에 위치하게 되면 사리전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는 형상으로 배치되었다고 추정된다. 이것은 사리전의 공간과 대장전 및 라한전의 공간을 각각 구획해 주는 것으로서 양쪽 동서의 석축 분위기와 어우러져 각자의 공간을 연출함을 엿보게 한다. 한편 사리전이 있었음직한 자리에는 현재 (7-간) 건물지가 있는 바 전면 주열만 남아 있는데 3칸집인 것으로 보인다. 사리전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여기에 사리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여주 신륵사 조사당 건물처럼 원래는 간사이가 큰 단칸 건물이었지만 후기에 전면 3칸 건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한다. 그렇다면 원래는 다포집이었다가 후기에 익공계 건물로 개축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다음은 설법전의 문제이다. 설법전은 문자 그대로 호국불교인 교종에서는 강당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이것이 선종으로 바뀌어지면서 대웅전으로 변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예를 들자면 금산사의 대웅보전이나 범주사의 대웅보전 등이다. 다시 말해서 남대문인 해탈문, 사천왕문을 거쳐서 목탑, 다음에 금당인 극락전(? 지금은 없어졌음), 맨 마지막에 강당을 두었었는데 이것이 선종 사찰로 바뀌면서 (정확히는 중간에 미륵교의 사찰로 변신했다가 다시 조계종의 사찰로 됨) 강당을 대웅전으로 삼고 대신 복판의 금당을 없애버리는 수법이다. 그렇다면 여기 설법전은 호국불교인 교종에서 선종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바, 강당에 해당하는 설법전이 맨 마지막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사리전을 배열해서, 마치 통도사의 배치처럼 설법전이 강당의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금강계단과 같은, 곧 부처님을 모시지 않은 대웅전의 기능도 수행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앞질러서 말하자면 금당에 해당하는 보광전을 고려 말까지는 안치하고 있었지만 조선조에 들어와서 조계종으로 종파를 통일하게 되면 두개의 건물을 합쳐서 좀더 규모가 큰 건물로 만들고 금당에 해당하던 원래의 보광전은 없애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설법전은 뒤의 사리전에 바짝 붙어서 배치되었다가 차츰 전면으로 나오면서 7칸집으로 되지 않았나 추정해 본다.

원문에서 "설법전의 서쪽은 가론 조사전이요, 또 그 서쪽은 가론 수좌료라. 설법전의 동쪽은 가론 영당이요, 또 그 동쪽은 가론 서기료인데 모두 남면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설법전을 현재 노출되어 있는 유구의 맨 뒤로 설정하여 X8선을 뒤줄로 삼는다면 X4선까지(측면 5칸 정도)가 설법전에 해당되며 Y8과 Y9선의 주열들은모두 바로 옆 건물이 되는 영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면의 주열이 약간의 들숙날숙은 있겠지만 대체로 X6선을 중심으로 복판에 설법전(정면) 5칸, 동쪽에 영당과 서기료, 동쪽에 조사전과 수좌료가 배열된다.(여기의 배치 내용은 대단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목은 이색이 직접 관찰하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려진 도면을 보면서 기술하였을 것인데 당시의 도면이란 현재 남아있는 도면을 살펴보더라도 이 기록 이상 더욱 상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동서남북이 조금씩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점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다) 이렇게 되면 수좌료와 서기료는 각각 조사전과 영당을 보좌하는 것도 되지만 뒤쪽 건물인 대장전과 라

한전의 건물의 전정을 둘러싸는 효과도 발휘하리라고 생각된다.

다음 원문에서 "영당의 남쪽에는 서쪽을 면하여 가른 향화료요, 조사전의 남쪽에는 동쪽을 면하여 가른 지장료라"고 하였으므로, 이 건물들이 성격상 길어야 3칸 정도의 길이라고 가상할 때 모두 제 6단지 위에 올라서게 되며 이들은 조사전과 영당을 약간 동서로 비껴서 놓이므로서, 조사당과 영당의 조그만 앞마당을 형성해 줌과 아울러 설법전 앞에 마련된 월대 공간도 호위하는 형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유구는 보광전이라고 전해지는 건물치가 X1에서부터 X5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이것은 나중에 구축된 것이고 원래는 제 6단 기단에서부터 대층 X3열 사이까지 아마도 월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대개는 기단을 앞으로 끌어내리면서까지 건물을 앞으로 내리지 않는 까닭이다. 말하자면 이때의 설법전은 불국사의 강당인 무설전보다 훨씬(기능적으로) 무게가 실려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다음 원문에서 "보광전의 동쪽 조금 남쪽에는 가른 전단림인데, 동운집이 면서하였고 서운집이 면동하였다. 동운집의 동을 가른 동파침이라 하는데 면서하였다. 서운집의 서를 가른 서파침이라 하는데 면동하였다"라고 하여 보광전 동쪽에 전단나무(높은 향기가 나는 인도 특산의 나무. 장삼식, 대한한사전, 박문출판사, 1973. 서울)숲이 있는데 이 속에 마당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동운집과 동파침이, 서쪽에는 서운집과 서파침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배치도 상으로 볼 때, 제 6단 동쪽 3단 석축 위의 동편 구릉지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일 그렇다면 보광전은 전단림보다 조금 북쪽에 놓여야 되며 이곳은 바로 앞에서 설법전의 위치라고 설명한 곳이어야 하던가 혹은 설법전과 붙여서 제 6단 기단 바로 위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오차는 당시의 도면 작도법의 오차일 것으로 밀어붙여서 보광전은 설법전보다 한단 아래인 제5단에 배치된다고 보고 전단림은 보광전의 동쪽이지만 약간 뒤쪽에 위치한다고 추정한다. (정확한 방위상으로는 보광전 거의 정동에서 약간 남쪽으로 놓인다. 그러나 당시에 여기까지 계산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기록하기가 편했다고 믿어진다. 동국여지승람 양주목, 불우조 회암사에, "목은 문정공이 기지 왈,(생략)유보관전으로 동서분좌우하여 제전이 각기하고 종루가 참차하고, 종루 사문 주고지소와 빈객지위가 질호유서하고, 동우가 연선하고 랑요가 만회하고 고저명미하야, 부지동서라"

곧 목은 이색이 기록해 말하기를, 보광전으로 연유하여 동서 좌우로 나누어서, 여러 전각이 우뚝 솟아나온 여러 요사가 얽히고 설키며, 종루와 사문, 부엌과 창고 및 손님객실의 자리등이 차례로 질서정연하고 집과 지붕들이 연달아 펼쳐지고 회랑과 월랑들이 덩쿨처럼 두르고 높고 낮은 것이 아득하여, 동서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으므로 보광전 아래 편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가를 정확히 기록하지 못할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아래쪽은 건물의 품위상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건물들이 아니므로 시대에 따라 무수히 변천해 갔을 것임에 틀림없고 이런 사실은 현 유구상의 기단지나 초석들을 살펴봐도 짐작이 간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현재의 유구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보다 상세한 발굴이 진행된다면 더욱 확실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런지도 모른다.

다시 원문에서 "천랑은 3칸인데 서승당에 접해있고 보광전에 바로해 있다.(이 부분 구두이 틀렸음)" 천랑은 원래 건물이 없는 것인데 여기서는 3칸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성균관의 건물에서 천랑상부에 건물이 지어지듯이 여기서도 그렇다고 이해해서, 보광전 바로 앞에 천랑이 세로로 있고 이 위에 천랑 건물이 세워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서승당에 접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승당이므로 서쪽에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는 바 이것에 가장 가까운 유구는 현존하고 있는 제 5단의 가와 나의 건물지로 보여진다. 이것이 보광전 앞의 천랑과 접해 있을려면 보광전은 제 6단지로 올라서거나 아니면 제 5단지 뒤로 바짝 붙어 서줘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 4단지의 서쪽에 있는 건물들을 지칭해서 서승당으로 불렀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설명할 건물지들과 중복되게 되고 또한 제 5단지의 가와 나 건물지를 설명할 수 없게 만든다. 앞서 설명한 전단립과의 관계도 그렇고 설법전과 보광전은 상당한 지근 거리에 배치되어야 하며 후세에는 뒤의 설법전을 없애고 보광전과 통폐합해서 중간에 새로운 보광전을 세웠으리라고 추정해 본다.

원문에서 "정문은 3간인데 문의 동회랑은 6간이고 동객실의 남쪽에 접했다. 문의 서쪽은 열중료가 7간이고 격여서 북쪽으로 7간을 가른 동료라. 정문의 동쪽에 서쪽을 면한 5간은 동객실이요. 그 서쪽에 동쪽을 면한 5간은 가른 서객실이라"고 했는데, 정문은 당연히 제4단지의 복판 계단 바로 위로 봐야 한다. 확실한 것은 발굴이 보다 진행되어야 단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제 3단지까지 내려버리면 정문 앞에 시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건물의 유구를 제 2단지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노출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유구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런 의미에서 이곳은 반드시 발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구 정비 차원에서 표토나 제거하다보니, 과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학적 고증을 하는데 한계가 주어진다) 확실한 것은 제 3단지의 문지가 3간으로 되어있고 제 2단지의 계단은 3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세워진 문이 있다면 이것은 보다 큰 5간 정도의 문지였다고 보이므로 기록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제 2단지에서 아무런 건물지도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다음과 같이 고증해 보는 것이다.(노출되고 있는 유구 자체로만 본다면 제1단지 앞에 간단한 표식물, 제 2단지 앞에는 규모가 큰-범어사의 일주문과 같은-일주문, 다음 제 3단지는 사천왕문, 다음 제4단지에는 좀더 규모가 큰 5간 정도의 루다락문, 다음 제 5단지는 커다란 마당으로 비우고 끝으로 제 6단지에 보장보전이 있는것이 조선조 선종의 상식적인 공간 배열로 보여진다)

이제 정문을 제 4단지로 가상한다면, 동쪽으로는 동랑이 6간 배열되는데 대체로 기단 격이는 부분과 일치한다. 이것은 동객실의 남쪽에 접했다는 것이므로 제 4단지 동측 건물지의 서쪽부분은 동객실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음 서쪽으로 열중료가 7간이 배치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건물의 유구가 전혀 노출되고 있지 않지만 제 4단지 서쪽 기단 상부를 발굴하면 건물지가 발견될 것이 틀림없으며, 그 길이 역시 앞의 제3단지 건물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7간 길이에 해당되어 열중료로 볼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북쪽으로 격여서 동료 건물이 된다고 했다. 격였다는것은 건물이 곱은자 집이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이상이 없으나 정문의 서쪽에 있는 집을 동료라고 하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묘사가 좌우로 놓여 있으면 자연히 같은 위치에 있어도 동료, 서료로 구분해 부를 것이므로 아마도 동료는 열중료의 동쪽 끝에서 격어지며 동료 서쪽으로는 또 하나의 서료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대체로 노출된 현 유구의 건물지 4-가와 4-나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음의 문장도 손쉽게 풀어진다. 다시 말해서 제 4단지 동쪽으로 무수한 잘 나타나지 않는 건물지가 있는데 이중 중정에

가까운 쪽이 서객실이요 다음이 동객실인데 이들이 동서로 놓여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객실은 제 4단지 천랑에서 서쪽 4-나 건물지와 대칭되는 정도의 거리, 곧 지금 개울이 흐르면서 유실된 듯한 곳에 자리잡았던 듯싶고, 동객실은 그 동쪽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건물지가 아닌가 추측한다.(도면 참조)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서 동랑이 동객실의 남쪽에 접해있다는 말이 사실로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서객실은 서쪽으로도 면했다고 기록했을 터인데, 본문에서는 동쪽으로 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 확실치 않다. 그렇다고 서객실을 중정 건너 4-나 건물지로 옮겨놓고 동료를 그 서쪽에 있는 건물로 본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맨 서쪽의 건물을 동료로 표현하는 것도 마땅치 않구 정문의 동쪽에 동객실과 서객실이 배치된 것을 설명하는데 본문에서 동객실은 가로알자를 빼서 말하고 뒤는 가로알자를 넣음으로서 서객실 앞에 있는 그기자의 그가 동객실을 가르킴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료와 서료의 요사채는 서쪽에 동객실과 서객실의 객실은 동쪽에 배치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의 원문은 말이 갑자기 뛰어나가기 때문에(건물의 배치가 그만큼 복잡해서 차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어쩌면 작도자가 정확치 못했다는 말도 된다). 중간의 말을 똑 잘라내고 정확한 기준이 될수 있는 정문이 기록에 나오는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원문 중에서 "정문을 똑바로 조금 동쪽에는 가른 종루가 3간이요, 루의 남쪽 5간은 가른 사문이요, 루의 서쪽은 동을 면하여 가른 접객청이요, 루의 동북은 지빈료를 향하였구 접객(청, 자구 없음)의 남쪽은 동쪽을 면해서 양료방이요"라고 해서 정문 바로 앞 조금 동쪽으로 종루가 있다고 했는데 정문 조금 동쪽에서는 아무런 건물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정문 앞에서 종루가 될만한 건물은 정문 바로 코앞의 서쪽에 있는 2간짜리 건물지(3-라)와 (3-나)의 월대 밖에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 건물지는 동쪽에 있긴 있지만 3간짜리 단독 건물도 아니고 또한 뒤쪽으로는 구들이 시설되고 앞쪽으로는 루마루가 만들어져서 종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라 건물지는 거의 종루나 고루 건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서쪽에 놓였다는 것이고 2간 규모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 목은의 오기일 수도 있고 혹은 동쪽에 있던 것을 옮겨서 약간 서쪽으로 다시 앉혔다고도 생각되어 이것을 일단 종루로 가정하고 풀어보기로 한다. 다음에는 이 건물 남쪽에 사문이 5간이라고 하였는데 3단지 기단 위에서 발굴된 문지 유구는 명확히 3간 건물이고 복판에 통로를 두고 좌우에 사천왕을 앉혔을 것같은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기서 이상한 점은 문지도리 자국이 있는 돌이 문 위치에 놓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어서 이 문지도리 돌은 옮긴 것이 틀림없거나 혹은 무슨 사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래는 이 자리에 5간의 사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수하면서 3간 사천왕문으로 개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원래 선문에서는(이 절이 원래 선문에 속했음을 말해준다. 세종실록지리지, 1차보고서 재인용) 천왕



[사진 1] 사지내 부도



[사진 2] 사천왕문에 깔린 전돌

문에 문을 잘 설치하지 않음으로, 처음 고려 때 개창시는 교종이었던 관계로 문이 시설된 5간 사문이었다가 다음 성종시 중창할 때 고치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물론 김수은의 화암사 중창기에 "간각제도는 구제를 고치지 않고 다만 계체만 다듬은 돌로 고쳤다"고 했으나 실은 아무래도 간수까지 예전 제도를 그대로 간직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다음 종루 서쪽에는 동쪽을 향해서 접객청이 있다고 했는데 제 3단지 현 관리사 위치에 건물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마도 이것이 5간 내지 7간이 되는 접객청이 있었을 것이며, 이것은 뒤쪽의 각종 요사채에 딸린 접객용 마루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접객청의 남쪽에는 다시 동쪽을 향해서 양로방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유구가 노출되어 있는 제3단 다 건물지라고 가상해 본다. 그러나 이 건물은 어쩌면 다음에서 말하는 육실과 유구의 형태가 너무 유사하다. 그렇다면 조금 말이 어긋나기는 하지만 3-다 건물지 남쪽 제 2단지 서쪽으로 새로운 건물지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 역시 보다 치밀한 발굴의 결과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보다 어려운 문제는 "루지동북향 지빈료라"는 구절을 어떻게 새길 것인가이다. 루가 동북으로 향하니 지빈료라,고 하던가 혹은 루의 동북은 지빈료를 향한다,라고 하던가 모두 비슷한 해석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도치법으로 해석해서 "루의 동북을 향하니 지빈료라"고 한다면 조금 무리가 따르지만 지금 확실하게 발굴되어 있는 사천왕문 서쪽의 6간 3-가 건물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북쪽으로 퇴를 만들고 있어서 종루를 동북으로 향해서 놓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의 원문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문과 붙어있는 건물을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의문도 든다. 예전의 도면 작도법이 이렇게 어수룩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말로 설명하다보면 이렇게 표현되었을 것이라고 떼어 넘기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정확성을 너무 얕잡아보는 듯한 생각이 든다.



[사진 3] 행당과 향적전

[사진 3] 행당과 향적전



[사진 4] 추정되는 전좌료 앞의 배수구

[사진 4] 추정되는 전좌료 앞의 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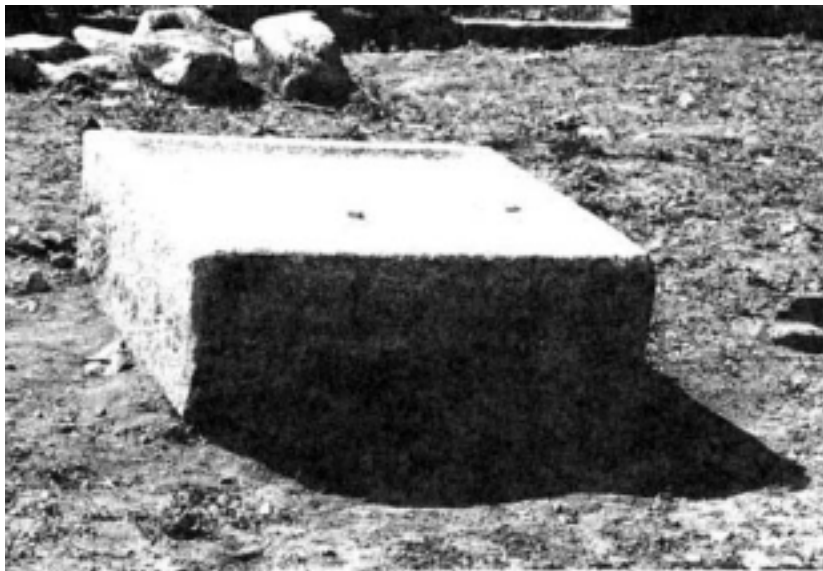
다음 원문에서 "지빈의 동쪽은 서쪽을 면하여 가른 전좌료라, 꺾어져서 동쪽으로 7간(한가할 한의 이음, 사이간으로서 6자를 이른다. 역주)은 가른 향적전이요, 전의 동쪽, 고루의 남쪽은 가른 원두료 3간(한)으로서 서쪽을 면하였고 전의 남쪽 4간(한)은 마구라"라고 했으므로 지빈의 동쪽 끝 제 3단지 중정 동쪽에 있는 3-아 건물지가 전좌료가 된다고 믿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빈료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다만 동쪽으로 설명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지빈료로 보고 그 동쪽에 있는 3-차 건물지를 전좌료로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그러나 여기서 꺾어져서 동쪽으로 7간이 향적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찾아봐도(혹 차후정밀 발굴시에 타건물지가 크게 노출되어 뭔가 다른 건물지가 발견된다면 몰라도) 3-차 건물지가 마치 맞는 건물지라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말한바와 같이 3-아 건물지가 전좌료라고 추측한다. 여기서 꺾어져서 동쪽으로 7간 건물이 향적전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발굴된 3-차 1건물지가 전면 7간 측면 3간인 전각의 규모를 갖춘 건물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건물 안쪽에 수조가 놓여 있는바 원래는 향적전이었던지는 알수 없으나 언젠가 후기에는 이 근처가 뒤의 요사 건물과 더불어서 손님을 접객하는 장소로 쓰였으며 욕실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적전의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향적전 뒤뜰에 정갈한 우물이 시설되었고(현재 발굴이 완전히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정황과 인근 촌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물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주변에 차를 끓이는 다관 받침대석이 2개가 줄 바르게 놓여 있는 점으로 미루어서, 그리고 향적이라는 이름에서 연유하듯, 아마도 이곳이 차를 접대하던 속은 차를 마시던 건물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물의 간살이가 가운데 주열 뒤로는 보다 높은 마루를 시설하고 조금 너른 앞퇴와 양측면 퇴간은 낮은 마루를 시설하고 있는

점, 또한 복판 간에는 뒤의 요사 건물과 앞의 회랑과를 연결하는 천랑이 있고 천랑 위에는 건물을 가설한 점, 복판 통로간에 붙여 서쪽 간살이에 목욕간을 설정한 점등이 특별한 행사, 다시 말해서 다례를 거행하는 건물이었다고 가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진 5] 향전적 안쪽의 우물과 욕조로 추정되는 석조

[사진 5] 향전적 안쪽의 우물과 욕조로 추정되는 석조



[사진 b] 차를 끌일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대

[사진 6] 차를 끌일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대

다음에 향적전의 동쪽은 원두료 3칸인데 서쪽을 향한다고 하였고 이것은 뒤에서 설명할 고루의 남쪽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현재 유구를 살펴보면, 3-자 건물지(추정 향적전) 동쪽 세로로 긴 건물지(3-차 1과 3-차2)가 나타나고 있으나 3-차는 명백히 정면을 향하여 지어졌으며 3-자의 건물에 연결시키기 위해 보충되어 지어진 집으로 짐작되고 뒤의 3-차1 건물은 향적전 동쪽에 있고 서쪽을 향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원두료라고 추정해본다. 곧 향적전과 원두료 두 건물이 박공지붕 형태로 있고 그 모퉁이 처리가 깨끗치 않아서 여기에 끼여져서 3-차2의 건물을 세웠을 것으로 가상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월이 흐른 다음, 이곳이 다른 용도로 개조되자 3-차2 건물과 일부 3-자 건물 앞까지의 처마를 길게 내밀어서 한단 아래의 처막(토방)공간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건축행위는 지금도 남아있는 사찰의 요사등에서 흔히 본다) 그렇다면 고루는 이 건물의 북쪽에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다음 문장을 새겨보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다고 믿는다. 다음에 향적전의 남쪽에는 4칸 크기의 마구간이 있었다 고한다. 여기에 딱 어울리는 건물지는 3단지 전면 회랑 동쪽 맨끝의 건물지에서 확인된다. 지금 나타난 상황으로는 (발굴을 더욱 계속한다면 동쪽으로 또 다른 유구가 발견될지는 알수 없으나) 정면 4칸 측면 3칸(전후퇴집)이고 초석의 상태가 막돌주초로서 충분히 마구간 정도의 건물이나 있었음직하다. 그러나 원문에는 사문과 마구간 사이에 있는 3-바와 3-사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의 건물지는 후퇴집으로서 안쪽 퇴간으로 통로를 개설하고 몸칸에는 대기실류, 또한 헛간등의 시설을 배치했음직하며 사의 건물지는 복판에 기둥을 박는 7간양통집으로서 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손님의 수행원)들의 접객 장소로 쓰였음직하다. 이것은 3-자(추정 향적전) 건물지와 지붕을 가진 천랑으로 연결된 점에서 더욱 확인된다. 다시말해서 이들은 건물의 회랑 겸 추정 향적전의 부속 건물로 만들어졌음으로 별다른 이름을 지니지 못하였고 따라서 목은의 기록에서는 제외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추정한다. 목은이 기록한 건물의 간수를 다 더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말한 건물의 전체 간수 262간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므로 글로 남기지 못했던 수 많은 창고와 회랑류의 건물이 있었다고 상상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원문의 해명하지 못한 부분으로 되돌아 가서 "열중료의 남쪽은 가론 관음전인데 그 서쪽에 동쪽을 면한 5간은 가론 옥실이요"라고 하여 정문 서측에 있는 열중료의 남쪽에는 관음전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것은 현 관리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해당할 터인데 발굴이 되어야만 그 유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그 자리의 비좁음으로 미루어봐서, 또한 다른 절에서의 경우를 생각해서(순천 송광사의 영산전이나 약사전을 비교할 만하다.) 단칸 집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서쪽에 있다는 옥실은 어디 있었을까? 현 관리사 서쪽 바로 뒤에 노출되어 있는 2기의 석조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목욕시설물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유물로 생각되어 아마도 이쯤에 옥실이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관음전과 가까울 뿐 아니라 오히려 건물이 중복되어진다고 판단되어 만일 이 수조가 원 위치가 아니고 조금 움직였다고 판정할 때, 현 관리사보다 한단 높은 곳에 위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절의 배치로 미루어서 3단지와 4단지, 정문과 사문의 서쪽은 주로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기거하는 공간으로서 이들이 몸을 정갈하게 하기 위한 목욕시설이므로, 지금의 예를 미뤄본다고 하더라도 절에서 가장 깊숙하면서도 뒤쪽 한단 위에 마련되는 것이 상식인 바

관리사 뒤쪽으로 동을 향해 5간의 욕실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현 관리인사 남쪽으로 일부 노출되어 있는 3-다 건물지이다. 이것은 앞의 수조와 동서축상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있으며 보간이 3간으로 만들어졌는데 복판간은 물이 흐를수 있도록 배수로시설로 만들어진 까닭이다. 이 역시 추후의 정밀 발굴을 기다릴 일이다.

다음의 원문에서 "부사료의 동쪽은 가른 미타전인데 그 (본문에 빠진 듯?) 쪽에 도사료 5간이 남쪽을 면했고, 그 동쪽은 가른 고루요, 그 남쪽은 가른 심랑이 7간인데 미타전에 접하고 그 북쪽으로 가른 장고가 14간이다. 고루의 동쪽은 11간이며 고에는 문이 있다. 루를 따라 동쪽으로 4간이요 또 격어져서 북쪽으로 6간이요, 또 격어져서 서쪽으로 2간이요, 그 서쪽은 빼놓았다"고 하였으나, 본문은 갑자기 부사료와 도사료가 뛰어나와서 기준점을 잃었는데 글자의 해석상으로보면, 이들이 모두 요사이나 도사료는 요사의 중요건물이고 부사료는 이에 버금가는 부속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준이 될 만한 높은 건물로서 고루가 기록되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원두료의 북쪽에 있다고 했으므로, 이를 기준삼아 글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정리된다. 원두료의 북에 놓인 고루의 서쪽에는 도사료가 남쪽을 향해 배치되고 도사료의 북쪽은 장고이며, 남쪽은 심랑인데 이것은 미타전에 접하고 미타전의 서쪽은 부사료이다. 다시말해서 도사료는 부사료의 서북쪽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루의 동쪽에는 문이 시설되어 있는 회랑 모습의 길다란 11간의 창고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 4간, 6간, 2간의 ㄷ자건물이 붙여서 지어진다. 모두 창고류에 속하는 건물들이다.

이들 창고 건물들은 제 4단지 동쪽 기단 위에 배치되었을게 틀림없는데 첫째는 고에 문이 있다는 것이고 다음은 원두료의 북쪽에 있는 고루의 동쪽에 놓인다는 점이다. (기단이 이 부분만 약간 뒤로 후퇴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면 고는 고루의 바로 동쪽이 된다) 이것을 대체로 축척을 맞춰 도면에 그려보면 제 4단지 대지가 동쪽으로 깊숙히 패어져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들어맞아서 이것이 이 자리에 놓였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한편 도사료는 동쪽 요사의 북판에 남쪽을 면하여 배치되고 그 동쪽에는 고루가, 북쪽에는 장고가, 남쪽에는 심랑이 놓인다고 했으므로 장고 14간을 기다랗게 4단지 뒤쪽 축대밑으로 배열하고 북판에 도사료 5간을 놓으며 4단지 앞쪽 기단 위로 일종의 속회랑이라 할 수 있는 심랑 7간을 끼워넣으며, 어쩐지 그 길이가 일부러 재놓은 것처럼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심랑에 접해있다는 미타전과 부사료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아래쪽 제 3단지로 내리자니 이 공간은 앞서 설명한대로 건물지가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간 분위기가 차를 끊어 먹던 곳이라고 추측되고, 심랑을 가로로 가는 회랑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을 세로로 잇는 건물로 생각해서 지금 제 3단지 건물지의 북판 뒤로 연결되는 건물로 생각할(그리고 제 4단지 기단 위에는 부사료와 미타전이 있다고 가정할)경우 심랑 7간이 맞지 않아서 끼워 넣기가 어렵다. (지금 발견된 부분은 제 3단지에서 3간 정도일 뿐이다) 따라서 심랑은 제 4단지 기단 위로 올라 가야 하며, 현재 노출되고 있는 초석의 간수로 미루어 대략 동쪽 동랑과의 사이에 3간 정도가 비므로, 이곳과 이곳의 서쪽, 다시말해서 앞서에서 동객실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남쪽에 이들 건물이 있을 것으로 일단 가정하고(이때는 동랑이 동객실 남쪽에 있다는 앞서의 기록과 중복되므로 이 보다는 약간 서쪽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사료와 미타전 건물이 좌우로 놓이지 않게된다) 다음의 보다 자세한 발굴 결과를 기대해 봐야 하겠다.

다. 맺 음

1. 총 합

목은 이색이 기록한 간살이의 내용은 보다 자세한 발굴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현재 노출된 유구와 거이 유사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고려시기 건물의 배치 방법을 명확하게 도시해 주는 것으로서 전시대의 회랑식 사찰 배치와는 다르며 조선조의 중정식 사찰배치 방식과도 다른 중간 단계의 배치 방식임을 알게 한다. 정면에는 가로로 회랑을 만들지만 세로 회랑은 요사등의 건물로 대신하는 방식은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기까지 이어지는 사찰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회랑식과 중정식의 중간단계의 형식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종 사찰이라고 여겨지는 거의 동시대 사찰인 춘천의 청평사에서도 볼 수 있다. 금당인 보광보전을 복판에 놓고 강당인 설법전을 뒤로 놓는 방식은 전형적인 회랑형식의 사찰배치 방식이지만 설법전 옆으로 회랑이나 또는 기타 건물을 연결시키지 않고 별채의 건물을 횡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후기의 교종적 사찰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서 보은 법주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지금 현재의 사찰 배치는 조금 다르지만 법주사 전시설 안에 보조된 옛 사찰 배치도를 보면 뒤쪽에 강당을 놓고 앞쪽에 또 다른 금당을 배치하는 모습이 여기 회암사와 일치한다. 따라서 회암사는 교종 후기의 회랑식 사찰 배치가 변형된 형태라고 하겠다)또한 설법전 뒤로 사리전과 정청등의 건물을 배치하는 것은 교종적인 사찰배치 방식은 아니나 통도사와 같은 맥락의 말기 교종적 배치 방법으로서 금당 앞의 탑보다는 강당 뒤에 놓이는 사리전이 더욱 강조되는 배치 방식이다. 특히 강력한 중심축을 중심으로 대체로 중심 건물들을 좌우대칭으로 맞추고 있는바 이것은 교종적 색채를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회암사는 초기 선종적 가람의 배치 방식을 보이고 있어서 회랑으로 건물을 두루지 않으며 요사를 동서로 나누어서 보광전 앞쪽 좌우에 비대칭으로 배열하여 회랑의 분위기를 대신한다. 특히 조선조에 들어서는 조계종의 핵심 사찰로 바뀌었으므로 금당을 없애어 중정을 만들고 대신 설법전을 보광전으로 통일하여 하나의 보다 큰 공간으로 만든다. 앞서의 금당에는 대종이 들어갈 수가 없었으나 후기에 보광전에는 일반 대종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예불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 큰 사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바 금산사나 보은의 법주사도 마찬가지이다. 금산사인 경우는 사찰이 교종에서 미륵교로, 다시 선종 사찰로 변화하여 원래의 전체 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역시 처음에는 교종 말기의 사찰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현재의 대응보전은 원래 강당에 해당하고 그 앞에 너른마당에는 금당이 있었으며 그 앞에는 지금 원통전으로 변해버린 목탑을 배치하고 회랑을 둘러뒀던 것인데 후기에 미륵사찰로 되면서 금당의 직각축에 미륵전을 짓고 다시 이것이 조계종으로 변하면서 목탑과 금당을 헐어내고 한쪽으로 치워서 현재와같은 중정식 선종사찰로 배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법주사인 경우는

원래의 모습이 옛그림에 남아 있으므로 확실히 알 수 있는바 원래는 남대문, 목탑인 팔상전, 금당, 다음에 강당을 배치하고 회랑을 들렀으나 교종 말기에는 회랑대신 이 자리에 각종 개별 불전으로 대신했고(중간에 이곳이 용화사찰로 되었을 때는 역시 금당과 직각축에 용화보전을 앉혔지만) 조계종으로 바뀌었을 때는 복판의 금당을 없애서 중정으로 삼고 뒤의 강당인 강당 자리에 사찰이 요구하는 주된 공간인 금당을 결합시켜서 보광보전으로 만들었을 수 있다.

특히 여기 회암사에서 중요한 것은 손님을 접객하는 공간으로서 동객실, 서객실을 따로 두고 향적전이라고 해서 다례를 거행했던 공간을 마련했다. 유적지에서도 향적전이라고 추정되는 제 3-자 건물지가 마루시설이 앞쪽은 낮게 뒤쪽은 높게 시설했던 듯한 흔적(기단이 건물 복판 기둥열을 따라 다시 나타난다)을 볼 수 있고 뒤의 사이 마당에는 차를 끓였던 자리로 보여지는 돌대좌 2기가 남아있고 정갈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우물자리가 남아 있어서, 당시는 교종의 말기적 현상인 화려한 공간 꾸미기와 손님 접객이 주된 행사 중에 하나였던 것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사찰에 욕실을 배치했다는 기록인데 욕실로 추정되는 곳은 발굴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차후 발굴이 시행되어야 밝혀지겠고, 차를 즐겼으리라고 추정되는 향적전, 곧 3-자 건물지에는 건물 내부에 수조가 있어서 이곳이 마루와 목욕시설을 갖추고 품격높은 다례를 즐긴 곳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새 김

회암사는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 우리나라 사찰의 중요 가람으로서 초기 회랑식 교종 사찰과 후기 중정식 선종 사찰의 중간적 배치 방식을 보이는, 우리나라 사찰 연구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사지이다. 목은 이색이 거의 사실에 가까운 간살이의 배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유구와 비교해 본 결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특히 여기서 기록되고 발견된 욕실 공간은 우리나라에 목욕문화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또한 구체적인 객실의 존재, 차를 마셨던 흔적, 손님 대기 장소라고 여겨지는 여러 시설물들을 살펴볼 때 당시의 화려함을 추구했던 교종말기의 장엄미학(크고 화려한것을 추구하는 미의식. 고려 때의 청자, 석탑, 부도, 초석등을 미루어 알 수 있으며 대표적인 건물은 예산 수덕사 대웅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들 수 있다.)을 대표하는 건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미학에 대항하여 선종의 극미학(작고 폐쇄적이며 정제되지 않은 원초적인 거친 자연 그대로의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미학)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너무 번잡스러움은 물론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흐르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유구를 정비 차원에서 초석들을 노출시킴으로서 당시의 용도등을 알 수 있는 과학적인 검증은 일체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목은 이색이 간살이를 확실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건물의 위치를 재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뒤의 변천까지도 살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유구라고 평가된다. 특히 건물지 3-아의 뒤쪽에서는 구들시설이 노출되고 있어서 회암사는 고려의 사찰 배치방식은 물론 건축물의 내용으로 목욕시설의 발견, 다례 공간의 확인, 구들시설의 변천등을 과학적으

로 증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것이다. 필경 이것은 정비 차원에서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학적 발굴을 선행하여 남한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고려 사찰의 모습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그대로 보존하였다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구를 망치지 않는 지름길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 건물의 사용척을 살펴보면 대체로 3가지로 나타난다. 가장 많은 것이 1영조척31센치미터로서 3단지 대부분의 건물이 여기에 속하곤 1영조척32센치미터는 문지와 그 동쪽 옆 건물인 동회랑만이 여기에 속하며, 추정 향적전 동쪽의 요사들은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듯 31센치미터보다 훨씬 적은 크기를 쓰고 있다. 따라서 1영조척이 31센치미터인 사용척은 고려말 사찰 창건 당시의 영조척으로 보이며 문지에 쓰여졌던 32센치미터는 조선조 성종시의 영조척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요사채는 조선 중기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91. 10. 16)